

대구지역 서점가 형성의 어제와 오늘

일제때 일선당서점이 호시... 현재 순수한 서점만 백여곳

차석규

대구 월계서점 대표

일제시대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대구 경찰서 형사계(지금의 중부서 자리)에서 배성도(당시 25세)라는 사람이 취조를 받고 있었다. “당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왜 서점이름을 日鮮堂서점이라 하였소.” 다짜고짜 옥박지르면서 고향소리가 높았다. 그제 해가 곱다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으나 조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점을 검색까지 하면서 사상적으로 물어부쳤다. 별다른 혐의가 없어 3일간의 구류를 살고 석방되었다.

고향이 청도인 배성도씨는 1912년생으로 대구에 올라와 22세 되던 해인 1934년 지금의 송죽극장 바로 앞에서 책노점을 펴고 극장을 드나드는 손님을 상대로 열심히 책을 팔고 있었다. 천자문, 춘향전, 한양가, 이조오백년 야사, 옥루몽, 신식 유행가 책자 등은 퍼놓기가 바쁘게 잘 팔렸다. 3년동안 노점을 하여 착실히 돈을 모아 지금의 상업은행 대구지점 서쪽 100미터 지점 효동병원 옆 대한 카바레가 있는 앞집 일본인집(현 보문인쇄소)에 세를 내어 일선당이라 이름짓고 경성에서 내려오는 책들을 구입하여 개점한 것이 대구서점의 효시이다.

노점상으로 돈 모은 배성도씨가 시작

일선당이라 간판을 붙이고 몇달후 경찰서에 불려가 서점 이름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太陽堂이라 이름을 바꿔 달았다. 그때만 하여도 신학문에 굶주린 백성들이리라 한자로 된 천자문 이외의 여러가지 책들이 그야말로 날개돋치듯 팔려 나갔다고 한다. 아침문을 열기 전에 책을 사러와서 문전에 기다리던 사람이 20여명이나 줄을 섰다가 문이 열리기 바쁘게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하니 정말 신명나는 장사였는가 보다.

배성도씨가 30세 되던 해에 19세 처녀와 결혼단꿈에 젖어 재미있게 장사를 하던 1941년 대동아전쟁(제2차대전)이 일어나 징용(보국대)에 끌려가 전쟁이 끝나 집으로 와서 해방과 더불어 잠 잘 시간도 없이 서점을 운영하였다. 지금의 북성로 입구에 집을 새로 짓고 확장하였다. 도매 소매를 겸하였다.

이에 앞서 1940년도에 동성로 지금의 양키시장입구(현 동성로 서울양행 위치)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大橋라 불리는 책방이 하나 더 생기고 중앙통 상업은행 윗쪽에 哲也堂, 맞은편에 研文社가 있어 서점수가 늘어 났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대교서점을 손

현재 대구시내에는 순전히 책을

취급하는 서점이 백여곳,

책과 문구를 취급하는 곳이

4백여군데가 있다. 일제시대 때

배성도씨가 '일선당'을 차리면서

시작된 대구지역 서적상 형성의 역사는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나름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역할은

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렵다.

중대씨가 인수, 대영당이라 이름을 바꾸어 서점을 계속하였다. 대영당서점은 대구시내의 교과서 공급을 맡아 영업을 하였다.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서점에서 역전 가까이 100여미터 이상 줄을 서서 책을 사가기도 하였으며, 밤에 돈을 세다가 잠에 못이겨 졸면서 돈을 세었다 하니 바로 그것이 돈방석에 앉아 장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또한 한국출판계의 원조라고 할 만한 계몽사의 내력을 빼놓을 수 없다. 고향이 안동인 김원대씨는 1946년 가을 대구에 왔었다. 처음에 신문과 책자를 대구역 광장 모퉁이에 퍼놓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지식욕구에 굶주렸던 시절이라 종이에 먹을 찍었다 하면 동이 나게 잘 팔리던 때이다. 특히 대구 폭동사건 전후로 신문이나 잡지 등은 정가의 배를 받고 팔기도 하였다.

1947년에 지금의 대구서적 자리에 계몽사라 이름하여 개업을 하였다. 김원대씨는 태양당에서 정가로 책을 구입하여 구색을 맞추기도 하였다. 서점이 점점 확장되어 도매상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1950년 6·25가 터지자 서울에 있던 출판인들이 대거 피난와서 주로 대구에는 단행본업자들이 발판을 굳혔다. 부산에는 교과서업자가 새로 영업을 꾸려나가는 형편이었다. 대구에 온 출판사는 장왕사, 박영사, 탐구당 등이 있었다. 60여 출판사가 대구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몇군데서 나온 책을 계몽사에서 도매를 하였는데 특특히 재미를 보았던 게 사실이다.

이때 김원대씨가 중심이 되어 한국출판물 판매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3년 만에



1930년대의 대구시 풍경.

문을 닫기도 하였다. 계몽사는 1950년 후반까지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진출, 본격적으로 참고서 출판에 하여 큰돈을 벌어 자기 고향에 학교를 세워 후배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도 출판을 대를 이어 계속하고 있다.

당시 文星堂 주인용씨도 1950년 후반까지 도매업을 하였으며 지금의 대구서적 자리에 文化書店(이효성)과 역전에 삼신서적(박수필)이 도매업을 운영, 1970년초까지 계속하였다.

1953년에 휴전과 함께 대구에 있던 출판사가 속속 서울로 북귀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갔으나 출판사와 서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상황이 어려워지고 덤핑업자가 판을 치는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출판물 거래는 몹시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한국전쟁중에는 출판사들의 대거 물러

이런 와중에서도 명문당(지금의 일신서점 전신, 김수간), 해방 직후부터 계몽사 직원으로 출발해 최근까지 서적계에 남아 있는 학양사(김우봉), 7세에 태양당에 들어가 학원서점을 이끌어온 홍수영씨,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책과 인연을 맺은 1954년 6월 7일에 개점을 한 月桂書店(차석규), 계몽사에 들어가 일하다 1955년 9월 18일에 개점한 본영당서점(구본석)은 대구서적계의 터줏대감이다.

1960년대에 대구에 40여서점이 있었는데 각 서점마다 할인판매로 서점 운영이 어려웠으며, 서울의 이병인(현 78세)씨가 중심이 되어 서적상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정가판매운동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현재 대구시내에 순전히 책을 취급하는 서점이 100여곳, 책과 문구를 취급하는 문구서점이 400여곳, 기타 슈퍼점과 같이 잡지 신문 참고서를 취급하는 곳도 수백 군데에 이르고 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서적계를 지켜본 역대 조합장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대조합장에 김수간(명문당, 작고), 신삼수(철야당, 작고), 최병한(양문당), 손중태(대영당), 서병진(대경서점, 작고), 정영배(송원서점), 정도철(계몽사), 박수필(박서점), 이상태(대양서적), 서진수(동양서점), 송일호(희망서점), 수도서점(천창봉), 월계서점(차석규) 제씨이다. 지금은 서점도 대형서점으로 탈바꿈되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을 수용, 독자들에게 공급하는 문화공간이 아쉽기도 하다.

대구의 고서적상은 한때 큰장(서문시장)에서 하나의 군을 이룬 때도 있었고, 시청골목, 남산동 뒷골목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의 향상으로 고서는 차츰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한때는 대구 시청 부근에서 도매업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봉동 건들바위 건너쪽 대봉2동 일대에 도매업 집단이 형성되어 도매중개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